

교차로

승가

해인승가대 육성병안 논의
설정 해인승가대 총동문회장 (조계종 총회)은 23일 오후 2시 서울 구룡사에서 해인승가대 육성지원 방안 등을 안건으로 98년 정기총회를 연다.

시각장애인·노인 위안잔치
삼중 부산 자비사주지는 부산 교육대학원(구 대법사 자리)으로 자비사를 이전하고 26일 오전 11시 주지 취임법회 및 지역인도들을 위한 잔치를 갖는다.(051)467-2366

탑전 철야정진 법회
밀운 봉선사 주지는 22일 오전 10시 탑전철야정진기도법회를 입재해 24일 회향한다.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성운 인덕원 이사장(삼천사 주지)은 14일 제2회 노인의 날을 맞아 은평구청에서 치매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명대사 388주기 추모법회
성오 부산불교연합회장은 15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시명대사 동상 앞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호국정신 계승 시명대사 열반 제 388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군포교 전산화 사업 논의
성광 예비역군법사회장(조계종 총무원장 사서실장)은 9일 회담 단 회의를 열고, 군포교전산화 지원사업과 정기총회 개최, 회원 포교활동지원 등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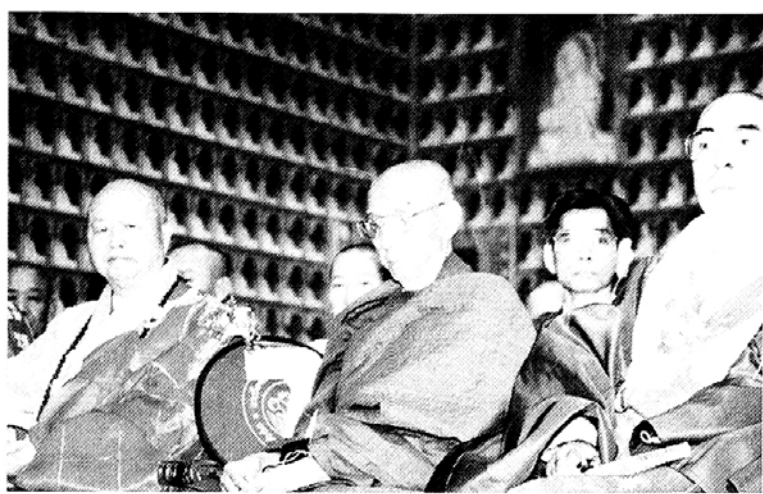
생보자 22가구에 백미
대운 양주 지장사 주지는 추석을 맞아 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 22가구에 백미 17가마씩을 전달했다.

개산 6주년 기념법회
승암 안성 도안사 주지는 11일 개산 6주년을 맞아 '돈오돈수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주제로 서명원 신부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가 건강식품 세미나 참석
시연 여래한방원장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자연식 건강식품 세미나 참석차 1일 출국했다. 또한 스님은 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템플대학에서 인체공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노인초청 칠순합동잔치
보안 대전 범종종합사회복지관장은 17일 대덕구 청성수 수련관에서 법 1·2동 거주 어르신 20명을 초청, 칠순합동 잔치를 열었다.

동시통역 법회



방한 인디아 JTS 회장 프라자나스님

빈민구호·마을개발·경전보급 "인도불교 미래 밝아요"

"인도불교의 미래는 밝아요. 국민층에게는 빈민 구호, 중산층에게는 경전 배포 및 각종 세미나 활동 등으로 인도 불교의 중흥을 일궈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불자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0일 JTS 창립 10주년 행사에 참석코자 방한한 인디아 JTS 회장 프라자나스님(Ven.G.Prajnananda) 스님(사진 오른쪽). 1928년 스리랑카에서 출생한 스님은 거쳐가는 인도 불교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10여년 전에는 상카시야 석가족 마을에서 현재 '인디아 JTS' 산하 수자타야카데미와 장인 유발 상좌 슈레스(Suresh Chandra Buddha, 사진 왼쪽)와 법륜스님(한국JTS이사장)을 만나면서부터 국민층에 대한 교화와 구호활동을 본격화했다.
93년 인디아JTS를 설립. 인도에서 가장 극빈한 지역으로

Focus

11일 천태종 관문사 낙성법요식 이 국내법회 사상 최초로 동시통역으로 치뤄져 눈길을 끌었다. 참석인사도 국제적이었지만 법회를 국어·영어· 일어·중국어 등 4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할 만큼 법회장 시설이 국제적 수준이었던 것.
법요식장 단상에 오른 2백여 명의빈 가운데 동시통역 헤드폰을 낀 외국대표단은 중국 국청사의 가명 방장(사진 왼쪽)을 비롯 7인과 일본 천태종 좌주를 비롯한 18인, 또 관문사 육불전에 봉안된 육불과의 인연으로 미얀마 소비라 중정(사진 중앙)을 비롯한 6명 등이다.
2시간 가까운 법회시간 동안 육불전 2층에서는 동시통역 진행을 하기 위한 통역사들이 각각의 통역실에서 신속하게 작업을 했다.
위영란 기자(yryul@buddhania.com)

"영상으로 한국불교 알릴 터"

美·加·멕시코서 포교 일사귀극 삼우스님

"삼보사찰과 적멸보궁, 관음도량등 한국불교의 성지를 사진과 영상에 담아 미국내 불자들에게 한국불교를 보다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불교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삼우스님의 말이다.
스님은 영상포교자료 촬영을 위해 지난 9월28일 미국인 제자인 안젤라와 함께 미국 국내 이미 강원도 지역의 직



별보궁과 관음도량 촬영을 마쳤다.
스님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강화도와 중남부 지역의 불교 성지 촬영을 마치고 11월23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조계종 호법부장서리 현각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6일 호법부장서리에 현각스님(원주 성불원원장)을 임명했다. 스님은 1970년 월정사에서 회관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해인사 강원도 동국대를 졸업한 스님은 영월보덕사 주지를 거쳐 원주 성불원원장, 원주시립복지원장, 명륜사회복지관장 등을 맡고 있다.

평생 만해스님 열 기린 김관호 옹 별세



만해스님의 속가 제자였던 김관호옹이 12일 93세를 일기로 별세. 14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영결식을 치른 후 고양시 벽제 선산에서 영면에 들었다.
故 김관호옹은 생존해 있던 만해스님의 제자로 그동안 논문과 육성종언을 통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만해스님의 행장을 알렸다. 80년대 초부터 전국 각 대학을 돌며 만해사상을 강연하면서 한 편의 강연비도 받지 않

아 주위 사람들로 부터 "만해스님과 같은 분"이라는 존경을 받기도 했다는 일화가 있다. 특히 독립선언문의 '공약삼장'이 만해스님이 쓴 것이 아니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만해스님 입적시 스님이 쓴 '공약삼장' 친필을 자신이 직접 수습했다는 증언 등을 통해 만해스님에 대한 그동안 주장을 불식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또 만해기념회 대표 및 95년 발족한 '만해학회'의 산파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불교거사학회 고문법사로 활동하면서 만해스님의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하는 등 유년 계승에 앞장섰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nia.com)

다시 한번 총무원장 스님의 명예로운 선택을 간절히 발원합니다.

-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의 자진 해체를 요구하며 -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현 송월주스님이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나서신 것이 중헌중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송월주스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9월 29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헌의 자의적 해석으로 3선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종단을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이미 경고하고 이미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의 견해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이하 후보추대위)'는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대회의는 지난 7일 조계종 총무원에 공문을 접수하고 12일까지 송월주 총무원장스님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종단 인정과 승가화합을 위해 총무원장스님을 직접 뵙고 본회의 의견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서라도 본회의 애증심어린 건의를 받아 주실 것과 재차 수행자적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 송월주스님의 진면목을 종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수행자의 뒷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법규위원회는 3선출마의 명백한 위헌성을 심판해야하며, 후보추대위 명단에 법규위원스님들을 필용한 것은 중헌중법위반행위이며 잘못된 처사입니다.

종헌 80조에 의거 중헌의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법규위원회이며 승단전통과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보추대위는 정법을 판단해야 할 법규위원스님들을 특정후보추대사를 밝히는 명단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는 법규위원스님들의 공정성을 의심스럽게하고 전체 법규위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세간법에서도 선역에 대한 개인적 지지는 자유이나 헌법재판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94년 서의원 전 총무원장은 합법적으로 3선을 강행하려 했음에도 전종도들의 의견은 정반대였습니다. 현재도 중헌해석상 3선출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종도들의 뜻입니다. 94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법해석부터 종도들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보추대위는 3선출마 강행에만 눈이 어두어 또한번 종단의 명예를 실수시켰습니다. 후보추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법규위원스님들까지 이용하는 처사는 사부대중에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총무원 집행부는 1998.4.8 대불출종 제27호 공문을 통해 세간법에 의해 3선해석을 의뢰하였으나 중헌중법내인 법규위원회에 먼저 해석을 의뢰하였는 것입니다. 현 총무원집행부가 배포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3선해석은 자의적인 것이고 종단내외의 불리함을 세간법에 의존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반승가적인 의도입니다.

본연대회의는 3선출마가 중헌중법에 위배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지역적인 문제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인 3선출마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공정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직 총무원 부장스님이 후보추대위에서 활동 한다는 것은 중앙선거관위의 공정성을 해치며 선거이후에도 많은 부작용과 이후 책임성을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 불법,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의 모습에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명의로 여러 번에 걸쳐 교계 주간지에 불

법공고를 게재하였고, 수천만원의 거금을 들여 전국방방에서 선거홍보를 광풍처럼 배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진실한 모습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선거에서 볼 수 있는 물량공세, 관권선거, 금권활동이라는 타락선거의 현형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종도들의 여망인 공정선거와 중책선거를 무시하고 추대위가 과열탄약선거로 만들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 3선반대는 종도들의 뜻입니다.
후보추대위는 3선 반대 여론이 드높아지자, 이를 막아보고자 금권과 권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조금씩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하기에 14일 추대위 기자회견에 공식적으로 명단은 발표했지만 참석하지도 않은 스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인연 때문에 명단에서 거절할 수 없어서, 또는 반신반의한 생각에 이름을 포함시켜준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추대위에 직책을 맡은 스님들 가운데 3선출마의 적법함과 당위성을 자신있게 답변하는 스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득권을 지켜내려는 극소수 일부 권승들만이 세속적 판단과 반승가적인 사고로 종도들의 여망을 호도하고 자신의 불법과 탈법선거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연대회의의 불명함 지적대로 현 총무원장스님의 3선출마는 중헌중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자진 해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월주 스님께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주 스님께서는 지난 4년의 공과를 떠나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종도들은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무원장 스님의 명예를 짓밟으려는 모습을 모든 종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과 덕망을 받은 교부사주지스님들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 일부 극소수 권승들의 부추김에서 벗어나시고 추대위 탈퇴선언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송월주스님과 전직 포교원장스님들께서 종단의 명예와 개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사회의 지도자로서 위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월주스님께서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시고 교구부사 주지스님들 역시 종도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과 우려를 주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 우리의 요청
- 월주스님은 20일까지 저희들의 요청대로 불출마선언을 공식발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도 20일까지 자진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자천타천으로 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실 후보스님들께서는 월주스님이 출마하실 경우 '불출마 선언'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우리는 원로대덕스님들과 종도들의 의견을 모아 11월 4일 승려 정진대법회, 11월 11일 범불교도 정진대법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불기 2542년 10월 14일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02-725-3766) 공동의장 : 청화 혜충 지원 종광 효산 진관 효종

■참여단체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동국대석림회 동국대석림동문회 동국대동림동문회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중앙승가대학교총학생회 중앙승가대동문회 조계종을 염려하는 중회의원모임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불교법조인회 내 20여명의 변호사 청년여래회 제주불교정보청년회(이상 15개단체, 10월 14일 현재 참여단체, 무순)
■불자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의견을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111번지 402호 725-3766 우편번호 : 110-150 통신ID : Anti29 은행구좌 : 외환은행 059-19-35455-2 예금주 : 삼선반대